여자월드컵 결승전 달군 '축구 성차별' 논란

미국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여자 월드컵이 '스포츠 성(性) 대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결승전이 열린 프랑스 스타드 드 리옹 경기장에서 상당수 관객들이 '공정 보상(Equal pay)' 구호를 외쳤다.

이날 네덜란드를 2-0으로 물리치고 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미 여자 축구대표팀이 경기장 밖에서 벌이고 있는 '성 차별과의 싸움' 을 응원하는 구호다. 주장 메건 러피노(34)가 이끄는 미 여자 대표팀 28명은 앞서 미국 축구협회를 상대로 "남성 대표팀과 동등한 보상을 해 달라." 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본격화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이어 '남녀 공정 보상' 문제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동아일보' 에 따르면 미 여자 축구대표팀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팀이다. 1991, 1999, 2015년에 이어 네 번째 정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올해 대회에서는 부동의 경기력을 뽐냈다. 미국은 7경기 동안 역대 최다인 26골을 터뜨렸고 실점은 단 3골만 허용했다. 총 6골을 넣은 주장 러피노는 최우수선수(MVP) 격인 '골든볼' 과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되는 '골든부츠' 상도 독식했다. 이는 미 남자 축구대표팀의 성적과 대조적이다. 남자 팀은 월드컵 우승은커녕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여자 대표팀은 이 점을 문제 삼는다. 성적이 훨씬 떨어지는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보다 경기당 3배 이상 많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CBS는 "미 축구협회는 '여자 경기의 수익이 더 적고 시청률도 낮아 보상을 덜 받는다' 고 주장하지만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여자 대표팀이 2015년 월드컵 우승 후 3년간 남자 대표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고 지적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한 미 남자 대표팀은 537만5,0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반면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미 여자 대표팀의 상금은 172만 달러에 불과했다.

몰리 레비슨 여자 대표팀 대변인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적은 보상을 받고 있다." 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뉴욕)도 트위터에 "여자 대표팀이 최소 2배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고 가세했다. 미 남자 대표팀도 여자 대표팀의 싸움을 지지하고 있다.

러피노는 지난달 말 예선 경기 도중 "우승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 고 주장해 "우승부터 하고 얘기하라." 는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승 직후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지만 백악관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살펴볼 것" 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저스 로버츠 감독 "WS 우승하더라도 백악관 안 가"

미 4대 프로스포츠 우승팀은 백악관의 초청을 받는다. 예전부터 이어온 전통이다. 구단과 선수는 초청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했다.

그런데 도날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미국 우선주의' 를 표방하고 실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색인종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9일 '스포티비뉴스' 에 따르면 올해도 문제가 불거졌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알렉스 코라 보스턴 감독부터 백악관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사망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코라 감독을 비롯해 보스턴의 몇몇 선수들도 정치적 이유로 참가를 거절했다. 보스턴의 전설적 선수인 데이비드 오티스 또한 "트럼프가 사람들을 분열시켰다" 고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의 생각은 어떨까. LA 다저스는 전반기를 리그 최고 승률(.652)로 마무리했다. 지구 2위 애리조나와 경기차는 무려 13.5경기다. 통계 프로젝션이 보는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은 99%다. 현시점에서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확실시되니 자연히 가장 높은 우승 확률을 확보하게 된다. 다저스는 지난 2년간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팀이기도 하다.

로버츠 감독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백악관 초청 행사에 대해 "우선 월드시리즈 우승을 해야 한다" 고 말을 아끼면서도 "워싱턴에는 경기를 치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 답했다. 초청을 받아도 가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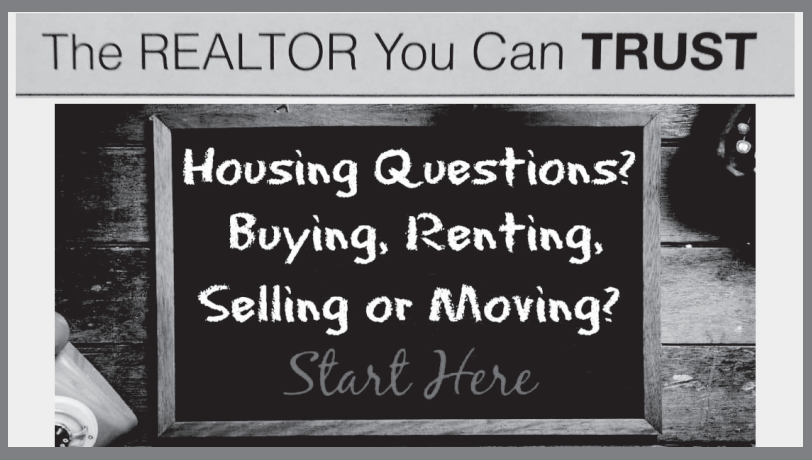
로버츠 감독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악연도 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차전 당시 다저스의 투수 교체를 힐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저스 감독은 거의 7이닝 동안 상대 타선을 누른 선발 리치 힐을 내리고, 불안한 불펜투수들을 기용했다. 불펜투수들은 얻어맞았고, 4점 리드가 사라졌다." 면서 "감독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 고 비판했다.

당시 로버츠 감독의 이 교체는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감독의 결정을 비판한 것은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일이라 더 큰 관심을 모았다. 로버츠 감독은 말을 아꼈지만, 심기가 좋을 리는 없었다. 다만 로버츠 감독이 당당하게 백악관의 초청을 거부하려면 일단 우승을 해야 한다.

RE/MAX DIAMOND BEST REALTOR® EVER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교육, 학군 전문가로 대학입시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맞는 학군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ollege Consultant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